



수소소부장연구조합

## 보도자료

산업중심 기술혁신,  
글로벌 수소기술 경쟁력 확보

보도일시 : 2026년 3월 5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6. 3. 5.(목), 13:30	담당부서	수소소부장연구조합 사무국
		담당자	변성민 선임연구원(02-6258-7448)

### 글로벌 수소기술 경쟁력 확보 앞장선다! 「수소소부장연구조합」 공식 출범

- 수소소부장연구조합, 5일 현판식 개최...기업중심의 수소 전주기 R&D 지원 총력 -
- 김재홍 이사장 “국내 수소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원년 될 것” 포부 밝혀 -

수소소부장연구조합(이사장 김재홍, 이하 수소연구조합)은 3월 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수소연구조합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해 12월 연구조합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수소연구조합의 출범을 대외에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소소부장연구조합 추진 경과 : 창립총회 개최('25.10) → 과기부 설립인가 신청 ('25.11) → 설립인가 허가('25.12) → 법인 설립등기 완료('26.2)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R&D) 투자와 실증기반을 확대해 왔지만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활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이어져왔다. 또한 여러 부처 및 지역별로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로 이어지는 연계형 사업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소연구조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 수요를 출발점으로 삼아 ‘과제 발굴-공동기획-R&D-실증-사업화’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전주기 실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연구조합을 기업들이 함께 기술개발부터, 실증, 표준·인증까지 연계하여 시장에 안착시키는 ‘실행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HySUT(Hydrogen Supply and Utilization Technology Association, 수소공급·이용기술협회)가 규제·기준 정비와 국제표준화, 공동연구를 병행하고, HySTRA(일본 가와사키중공업과 이와타니산업 등 7개사로 구성된 기술연구조합 CO<sub>2</sub> 프리 수소 공급망 추진 기구) 등은 공급망 전주기 실증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소연구조합은 수소기술개발 결과를 조합원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수요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발과제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성과가 빠르게 축적·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연구조합은 「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기술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①산업계 주도 R&D 네트워크 구축, ②공동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 ③수소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④수소 전주기 구현 프로젝트 기획·추진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주요 사업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올해는 산업 중심의 기술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순환 추진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기업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수요연계형 R&D 과제발굴·기획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테크포럼 및 해외 기술참관단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기술협력·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교육·홍보 서비스를 통한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수소산업은 신기술 분야 특성상 규제·인허가 체계가 미비하거나

공백인 기술이 다수 존재해 기업들이 기술개발의 기획·추진 단계부터 인허가 대응전략 수립에 큰 부담을 겪고 있으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준화 및 인허가(규제) 대응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을 비롯하여 제이엔케이글로벌 김방희 대표이사, 제아이엔지 박인규 대표이사, 수림테크 이덕재 대표이사, 에너지 이영철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용태 상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문 부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소장 등 이사진이 참석하여 첫걸음을 축하했다.

김재홍 수소소부장연구조합 이사장은 “주요 수소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의 기술격차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수소소부장연구조합은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손과 발이 되어 기술개발부터 실증·표준화·인허가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소연구조합은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규정 제정(안), 2026년 운영계획(안) 등을 상정·의결했다.(끝)

**#붙임) 수소소부장연구조합 설립 및 운영(안)**

**행사 사진 후송.**

## 붙임

## 수소소부장연구조합 설립 및 운영(안)

### 비전

산업 중심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기술 경쟁력 확보

### 목표

- ◇ 조합원 : ('25) 25개社 → ('27) 70개社 → ('30) 100개社
- ◇ 연구수행 : (~'26) 3건 → ('27) 5건 → ('30) 10건
- ◇ 연구그룹 : (~'26) 3회 → ('27) 10회 → ('30) 15회

### 운영 방향

- ◇ 한국수소연합과 조직·운영 연계를 통해 조직 안정성 확보
- ◇ 연구기획·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조합원 기술·사업성 제고
- ◇ 초기 수소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과제기획·수행 중심  
→ 전주기 실증 및 해외공동연구 등으로 사업 확대

### 【추진전략】

### 【주요사업】

1. 산업계 주도 R&D  
네트워크구축

- ① 산업계 중심의 R&D기획·성과 확산체계 구축
- ② 국내외 수소기술공유 플랫폼 운영

2. 공동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 ① 분야별 공통애로기술 및 기업협력 R&D 기획
- ② 수소벨류체인별 국산화 핵심기술 R&D 수행
- ③ 수소전문기업 전용 R&D 기획·컨설팅

3. 수소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

- ① 핵심원천기술 기술사업화 및 실증사업 발굴·운영
- ② 수소전문기업 기술사업화 사전컨설팅 지원
- ③ 조합원 기술지도 및 연구교육

4. 수소 전주기 구현  
프로젝트 기획·추진

- ① 전주기 실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② 전주기 실증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